

예산 1100억 써 보지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

광주시, 정확한 예측없이 37건 무작정 편성 시의회 "검토 부족"… 추경서 81건 83억 감액

광주시가 올해 쓰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한 예산이 1100억원을 넘고, 감액한 예산도 8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예측없이 무작정 예산만 늘려 놓고 제대로 쓰지 못한 셈이다.

2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도 2차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가 명시이월한 사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 110건에 1110억9200만원에 달한다. 일반회계는 95건 1014억3500만원, 특별회계는 15건 96억57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3년 명시이월액 501억원에 비해 갑작이 넘는 금액이다.

명시이월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한 사업의 기정예산액(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은 1689억여원이었다. 편성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한 사업도 37건에 달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명시이월한 사업의 대부분은 토목·건축·용역 사업들이고 애초부터 올해 집행은 어려울 것이 예견된 사업들이 상당수"라며 "사업 추진

단계별로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시의회는 이처럼 명시이월이 많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 단계별 예산확보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관행성 일괄 총사업비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가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정예산 대비 전액 또는 50% 이상 스스로 감액한 사업도 81건, 금액으로는 83억7000만원에 달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광주시가 기정예산 대비 전액 감액한 사업은 44개 사업 53억3000만원이었고, 50% 이상 감액한 사업도 37개 사업에 30억4000만원에 이른다.

사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기업 애로 기술 해결지원 4억원 등 자동차산업과 소관 예산 10억원이 전액 감액됐고 사유는 '진

환경부품클러스터 사업에 포함해 추진하기 때문'이었다. 사전에 유사종목 사업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셈이다.

광주시의회는 "3억4000만원을 감액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어야 했다"면서 "국비 50%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임에도 국비 확정 전에 시비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공모사업에 탈락하자 감액된 감염병관리본부 운영지원 예산도 불합리한 사례다"고 지적했다.

또 "불가피한 감액도 있었지만 정리 추경에서 감액사업 건수가 많다는 것은 행정예측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감액 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여부 점검 등 사전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은 10억원을 삭감해 대상역 2곳 중 1곳만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 4억원과 빗그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65억원 중 8억8000만원도 감액됐다.

또 이날 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올해 추경에 반영할 것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시교육청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우선 편성해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8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의회,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 추경 편성

추경 4조55567억원 의결

광주시의회가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따른 예산을 의결했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7일 광주시가 제출한 2017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편성요구액보다 11억8000만원을 삭감한 4조55567억원으로 의결했다.

주요 세출예산 요구안은 대부분 받아 들여졌으며, 광주시교육청에 지원하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예산 67억원도 원안대로 수용됐다.

교육재정교부금·교육세 보전총당금 125억원, 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94억원,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42억원, 세계수업선수권 대회 30억원 등도 반영됐다.

반면, 도시철도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은 10억원을 삭감해 대상역 2곳 중 1곳만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보수 사업 4억원과 빗그린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65억원 중 8억8000만원도 감액됐다.

또 이날 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올해 추경에 반영할 것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시교육청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우선 편성해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28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뒤 오는 29일 본회의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워라벨 페스타' 릴레이 행사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전국릴레이 행사인 '워라벨(Work & Life Balance) 페스타'가 2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광주지역 근로자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균형문화 확산 선언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유입인구 70%가 1인 가구”

市 '인구정책 토론회'… 광산·남구 인구 늘고 동·서·북구 줄어 지역내 이동 불균형 심화

광주지역에 유입되는 인구 중 71.1%는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젊은 부부 등 다가구 이주가 필요하지만 1인 가구의 이주 비율만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광주시역 내에서도 광산구와 남구의 인구는 늘고 동구, 서구, 북구는 줄어드는 등 지역 내 인구 이동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27일 광주시의 '인구정책 토론회' 발제자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승규 연구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광주시

전인구의 1인 가구 비율은 71.5%로 전년(65.2%)보다 6.3%p 늘었다. 1인 가구의 이주는 대부분 학교 진학 등 임시 거주 형태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는 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지역 내 순이동률도 남구와 광산구는 각각 0.38%, 0.19% 늘었지만 동구, 서구, 북구는 각각 -2.42%, -0.92%, -0.69%가 줄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광산구 일대로 이사를 가는 시민들이 많고, 교육 여건이 좋은 남구로 이주하는 시민도 많은 탓이다.

특히 동구의 경우에는 함께 출산율도 낮아 '아이도 적게 태어나고 기존 인구도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다. 광주 지역별 함께 출산율은 광산구가 1.426명, 북구 1.152명, 서구 1.054명, 남구 1.002명, 동구 0.939명이었다. 함께 출산율은 가입기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아이의 수를 뜻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간 인구 격차도 크다. 이 기간 광주시 전체 인구는 130만여명에서 146만여명으로 16만여명(12.3%) 늘었다. 자치구 별 인구는 북구가 44만1066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광산구 40만 3049명, 서구 30만9579명, 남구 21만9729명, 동구 9만5791명 등이다.

연령대별로 35~64세가 45.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20~34세 20.4%, 5~19세 17.9%, 65세 이상 11.7%, 0~4세 4.4% 순이다.

구별로 광산구가 5~34세 비율이 41.2%로 가장 젊은 자치구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비율은 동구가 20.3%로 가장 높았다.

한편 28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리는 인구정책 토론회에서는 운영진 연구보진(북)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강수훈 스토리박스 대표, 나경원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임선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장이 참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AI 총력 대응 동물방역팀→동물방역과 승격

정기 인사 앞두고 직제개편

순천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남도가 동물방역팀을 '팀'에서 '과'로 승격·개편했다. 당초 내년 1월 정기인사때 단행하려 했지만 비상상황을 감안해 2개월 앞둔 정기 인사 때 단행한다.

전남도는 27일 축산과 동물방역팀을 동물방역과로 승격·신설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신설 동물방역과는 수의정책팀, 축산위생팀, 동물방역팀 등 3개 팀 14명 규모로, 서기관급인 동물방역과장에는 김상현 동물위생시험소장이 전보 발령됐다.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정지영 동물위

생시험소 동부지소장이 직위승진해 맡는다.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방역과는 업무·기능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방역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고재영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이 연례화되면서 방역과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화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직제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통보한 가축 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서 각 도(道) 분청에는 동물방역전담과, 시·군에는 동물방역전담팀을 설치하도록 했다.

전남도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동물방역안전과를, 경남도는 최근 동물방역과를 신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전기 아껴 3500만원 수익 창출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협약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이 이젠 전기를 시장에 되팔아 수익을 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은 27일 (주)KT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절약 나눔 실천을 위한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란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전기 소비자(가정·기업·사업장)가 수요관리 사업자와 전기감축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소비자가 전력 피크(peak)시간 전력을 감축한 만큼 전력거래소(KPX)에 전기를 판매하는 제도다.

광주환경공단은 전력거래소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과 더불어 국가적 전력난 해소와 예산 절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려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했다. 하수처리장 최대부하 9MW 중 11%에 해당하는 전력인 1MW를 전력거래소에 등록했다. 시공공기관 중 최대 용량이다.

안용훈 이사장은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통해 올해는 35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해 그만큼 예산을 절감했고 이번 협약식을 통해 내년에는 3800만원의 수익을 추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시민이 행복한 환경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보청기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013-GN1-10-0067
www.maxo.co.kr *이 제품은 '보청기'이며, '시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가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스'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스'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스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스'프로' **맥스'스텝'** **맥스'크리스프'** **맥스'스큐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스를 시험관장해 드림으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시험 비교 해 드립니다!!”

TV·말소리를 속시원하게 잘 들으세요!! 보조금으로 구입가능(청각장애등급2-6급 소지자)

귀여운~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가격·시험테스트 상담·검사·구입·무이자할부 등 안내

365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장안본사 02)2248-5600 ◆중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진)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